

Dubai유, 34.88달러로 다시 상승

석유공사, 하락 3일만에 반등 ... Brent유 37.02달러에 WTI 39.94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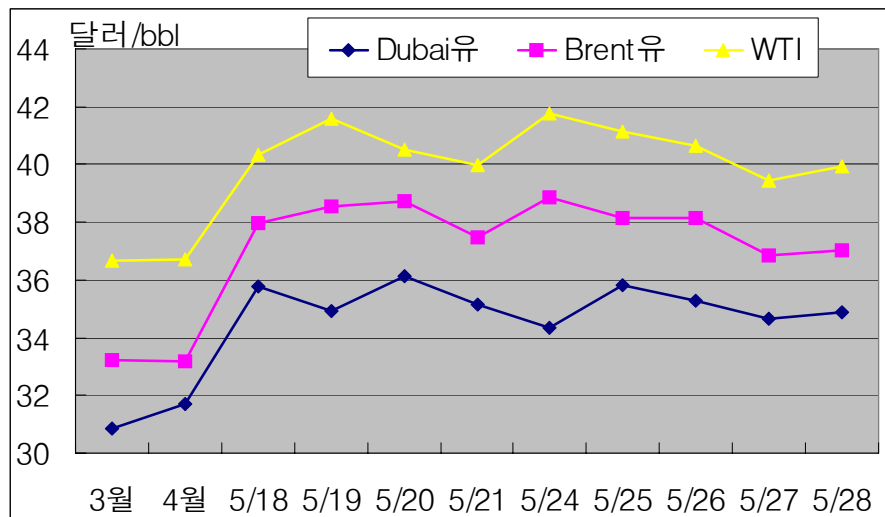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미국 일부 거래상들의 매수세로 4일만에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28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22달러 오른 34.88달러에 가격이 형성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0.52달러 상승한 39.94달러를 기록했으며, Brent유도 0.17달러 상승한 37.02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선물시장에서는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7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는 각각 0.44달러, 0.33달러 상승한 39.88달러, 36.5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결정 가능성과 미국의 휘발유 선물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미국 현충일을 앞두고 일부 거래상들이 매도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5/31>